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5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2. 23(목) 14:58~16:54
- 장 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층 이음아트홀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김미라      위원  
                  김진각      위원  
                  서승미      위원  
                  이훈경      위원  
                  장미진      위원  
                  장인주      위원  
                  정갑영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성태      위원
- 불참위원 : 배은주      위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3년도 예비예술훈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 등 의결안건 5건과 보고사항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님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개회에 들어가기 전에 노조위원장님께서 8기 위원회 회의에 첫 참석이시니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김효은 노조위원장 : 네, 지난번에 먼저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23대 집행부 노조위원장 김효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의 관련 자료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나주 본관에서 개최된 제349차 전체회의의 경우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고, 제35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면안건으로 상정된 의결안건 2건도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89호 2023년도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2023년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8기 위원님들 앞에서 첫 보고라 긴장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렵고 난해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긴장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관련한 정부 정책은 청년기본계획이라든지 예술인복지정책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수립된 모든 정부과제, 주요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다수 개최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예술가 대상 지원사업은 다양한 편이나, 예술대학생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학습 및 경험 기회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예술인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창작·행정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대학의 발전적 변화 유도를 위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가 현황입니다. 청년예술가는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출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을 줄여주는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교 전문교육으로 입문을 하는 청년예술가들도 많지만 신문, 잡지나 신춘문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입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대학 외의 예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활동지원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활동영역 역시 창작, 실연 중심으로 해서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비평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황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문체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문체부에서는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작년 7월에 추진했고 저희가 10월에 저희 문예진흥기금으로 2023년에 신규 추진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0월부터 각종 자문회의를 했는데요. 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예술가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 분야별 예술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이 사업의 출발이 되었던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그리고 현장전문가들 자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자문을 얻었는데요. 그 자문 내용은 10표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술대 혁신이라든가 예

술대학에 관련된 자원공유, 커리큘럼 혁신처럼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고요. 예술대학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에 대한 부담 우려와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 예술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주도성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문학·시각과 공연의 조금 다른 요구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성장동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현장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장르적 특성이 상당히 다양하고 활동 진로도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들의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연계를 통해서 단순한 경험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방향으로 잡은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과학습 위주의 예비예술인들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예술인력으로서 자기 주도 성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전, 경연대회, 오디션 등 예비예술인 발굴사업이 아카이빙, 멘토링, 해외진출, 차기작 발표 등 성장으로 연계되고 그 과정이 관객심사, 작품 판매, 순회공연 등 향유 및 확산과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들을 단독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지닌 예술대학, 현장 전문성을 지닌 민간예술가(단체), 극장·전시장 등 점점 공간, 지원 자원을 보유한 지역문화재단, 예비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청년예술가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은 필요하겠고, 또한 서울 내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연계라든가 관객 참여 연계, 해외 연계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비예술인들의 장르 그리고 세부장르(창작/실연), 전업이나 겸업예술가로 진로를 잡기도 하지만 기획기술행정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모델보다는 자율적인 제안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공고를 하게 될 사업내용인데요. 예상 사업명은 길지만 대외사업명은 현장 역량 중심으로 다시 특화해서 나갈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예술가, 예비예술인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민간경장보조 55억이고요. 사업유형은 저희가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비예술인 양성연계형이라고 해서 예술대학교나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예비예술인 발굴 확산형은 공모전, 경연대회, 페스티벌, 워크숍 등 예비예술인 발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예술가 주도형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가 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인데요.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7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공모로 진행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예술가단체들의 주도성을 주안점으로 보는 사업유형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예술위원회의 기본적인 지원분야를 포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성장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예술인 양성연계형이나 예비예술인 발굴확산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적은 것이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필수 수행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수행요건으로는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반드시 필수 수행요건으로 잡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유형별 착안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 방향을 실제 심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착안 사항은 신청단체와 저희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내용이고요. 예비예술인 양성연계형 같

은 경우에는 학교, 산학 같은 경우 정규 교과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 참여도 증진 방안.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실제 현장과 유사한지? 그래서 현장 경험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참여 구조. 그리고 서울 외 지역 대학의 참여. 그리고 단독이 아닌 복수 대학의 협력. 그리고 컨소시엄 단체의 연계 체계성 및 실질적 참여. 그리고 향후 정규교과목 개편 계획까지를 모두 착안 사항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예술인 발굴확산형 같은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멘토링, 컨설팅, 아카이빙, 해외연수 등 성장프로그램과 연계성 그리고 관객 참여·심사 후 후속 발표 등 대국민 향유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비예술인 참여 비중과 예비예술인의 주도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는 예비예술인 양성연계형은 최대 2억 원까지고, 예비예술인 발굴확산형은 최대 1억 원까지며, 청년예술가 주도형은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잡고 저희가 신청건수와 양에 비례해서 예산배분은 심의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서류와 인터뷰로 나뉘지고 전담심의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심의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심의기준 유형으로 세부평가내용을 적은 거라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다음 주에 모집공고를 내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사업설명회를 한 후에 4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빠르게 진행해서 올 한해에 좋은 성과가 나와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 55억이고요. 그 외에 사업운영경비가 반영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는 사업 공고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대외 공개용으로 편집한 내용이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홍보를 위해서 현장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장설명회에 대한 사전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지금 현장 업무보고라고 3월 3일에 계획되어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바로 전국에 있는 대학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같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세부 평가내용에서 보면 정확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짚어서 예를 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칭이 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수혜자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산학에서 전부 받아서 학생은 얼마고 주체자는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예술대학이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예술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술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부분을 갖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과정 속에서 가칭 예비예술인들에게 현장 경험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문화부의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어느 지역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바꾸겠다, 거기에는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실행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창작촌을 만들 수도 있고 더불어 살면서 한 마을을 생기 있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런데 학생들끼리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지침을 준 것대로 기존의 단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청년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양쪽이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는 것을 아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질문을 드려야만 이해가 조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일단 이름인 것 같아요. 아직 안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비예술인’이라는 말부터요. 예비예술인을 지원했다가 후보가 되면 ‘예비예술인 예비지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연계형’ 등 너무 복잡한데 사업을 좀 분리하면 안 될까요? 예술대학생 지원으로 하나를 만들고 컨조시엄 지원 등 구체적으로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종열 위원 :** 10페이지를 보면 문체부 연구용역에서 도리어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예술대 혁신, 프로덕션 지원, 졸업작품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상당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술대학생이 우려하는 것과 대학교수들이 우려하는 게 실질적인 겁니다. 만약 이 사업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교수가 굳이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어떤 것들을 지원받고자 할 때 당연히 학교가 해야 하는 문제를 “굳이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댄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하나를 딱 잡아서 ‘졸업작품 지원’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웬만한 예술대학에서 졸업 작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으로 있는 음악대학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오로지 자기의 돈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

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되도록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사실 문제부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경 위원** : 예술대학의 위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지역예술의 위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들은 지역보다는 위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술대학의 위기를 고민할 때 단순히 예술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예술대학이 있는 지역 예술의 위기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 예술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또는 그 학교들에 대한 컨소시엄을 같이 지원한다면 지역의 예술단체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고 그 지역 예술단체가 발전되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열려야 된다는 게 포인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칫 이런 사업들이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졸업작품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많은 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서 끝나는 소모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예술가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 지역의 예술단체들과 연계가 돼서 졸업 후에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그랬을 때 예술단체나 학교에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정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교수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과한 일거리가요. 그래서 그게 분배가 잘 돼서 아이들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면접을 보고 학생들 중심으로 기획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학습하게 해주는 것도 성장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일의 과중함을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홍성태 위원** :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못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못 모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받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지원금은 단체가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학 졸업 후 현장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요. 예술가의 수준이라든가 장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픈형으로 지금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아무래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나 예시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본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여

쥼보는 겂니다. 예술교육을 받았잖아요. 취업을 못 해서 그런가요? 저는 예술 쪽이 아니라 경영 쪽이라서요.

**장미진 위원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한예종에 비해서 다른 예술대학들이 너무 열세하니까 그쪽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죠. 한예종은 정부에서 빵빵하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 열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대학의 예술대학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서 처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태 위원 :**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주 예술기반본부장 :** 당초 문화부에서 이 연구용역이 나갔을 때 필요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기재부에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5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연구용역에는 졸업작품 전시회도 있었고 컨소시엄이나 대학공유 등도 다 있었는데요. 500억 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5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올해 첫 사업이고 지금 현재 2월 말이기도 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도 결과를 갖고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서 가장 크게 요구가 됐던 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실습을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받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수업과 현장은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어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학교수업밖에 못 받으니까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착안점을 뒀서 대학교와 예술단체들이 연계해서 그리고 학생들과 연계해서 실습하며 현장에서 공연할 때 대학생들이 같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기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 때 예시는 들 수 있는데요. 공고문에 나가면 거기에 또 매몰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이전부터 한예종의 학위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반 예술대학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와 무관한 필수과목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짝퉁이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한예종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자기 전공만 계속 할 수 있게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각광을 받게 되니까 다른 예술대학에서..... 그러면서 또 한예종에서 학위까지 인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반 예술대학에서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나마 예술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학위 때문에 오는데 그것까지 한예종이 갖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내려 오면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일반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한예종에 비해서 현장에 나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

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분들이 논의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다면 단체라는 자체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단체라고 하면 이 지원신청서를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부산대학교 국악과 1학년 학생이 지도교수 1명과 함께 부산시립국악단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단체라고 하면 그게 1학년인지 2학년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떤 단체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 단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이 어디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활동을 했는데 그게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이 응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교수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점을 해 주려면 전체 학사일정 자체가 굉장히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에 대한 인텐시브가 뭐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은 단체한테 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호하고 인텐시브를 주지 않은 단체에서는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지?” 물론 책무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과연....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정병국 위원장** :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많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인력을 쓰는 거니까요. 현재 극장에는 그런 작업이 있죠? 극장에 인력을 투입해 주고 급여는 이쪽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너무 흡사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단체는 환영 할 텐데 문제는 학생이 나오려고 하면, 평일 학교 가는 날도 나오려고 하면 이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산이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볼륨이 엄청 크면 “그런 데까지 지원하면 어찌냐?”라는 걱정을 할 텐데요. 지금은 예산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 때 “계획이 충실한지?” 그리고 “단체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심의평가표에 전부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하고 예술산업을 하는 단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 학점으로 인정을 받게 해 주면 실

효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단체가 집행할 때 그 학생들의 역량들을 보게 되고 채용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연속성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와도 연계가 돼서 지자체 매칭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인주 위원 :** 이 사업은 오영주 본부장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아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예비예술인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사회에 나오기 전의 예비사회인을 돕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계는 도제식 교육이 아직도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비예술인을 돕자는 사업이 결국 그들이 속해 있는 학과의 교수를 돕는 사업으로 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 삼아서 해 보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있는 회사도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1명을 현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도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신청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상황들이 약간 문제점이 느껴져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학교와 B기관이 C라고 하는 다른 공공의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성공사례가 나와야 클 수가 있잖아요. 해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다음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면, 학교에서만 하게 되면 교수에게 과중하기도 하지만 교수 위주가 될 것이고요. 단체로 가면 그 단체에서 바쁜 것을 하려다 보니까 학생은 소모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이 지역이면 더욱 좋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뭔가 도움이 될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면 학문적으로는 교수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실행적인 것은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모사업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잡으면 성과도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에 예비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은 예비예술인인데 신청 대상을 보면 예비예술인이 아니라 학교 그러니까 대학기관을 지원하고 민간예술단체 쪽을 지원하며 청년예술가가 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과 관련된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예술인이 아니라 사실 예술전공 대학생이죠. 예비예술인이 아니라 예술전공 대학생을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예술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념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술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예술대학 지원사업인데 대학에 지원이 되면 안 되고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술대학이라고 하면 사실 음대도 있고, 미대도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융합문화예술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에 대한 범주. 그리고 문화콘텐츠도 예술 쪽이라고 우깁니다. 지금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

면 “우리는 왜 지원을 못 하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콘텐츠도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나 단체 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면 사업이 정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예술기반본부장 :** 김진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대상과 신청대상은 구분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신청대상은 예비예술인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말고 대학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은 예비예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과 신청대상을 저희들이 구분한 것입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해서 별 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어려우면 사라지는 겁니까?

**오영주 예술기반본부장 :**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규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되겠죠.

**정갑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고”가 아니라 틀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 같은데요.

**남요원 감사 :**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새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국정과제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안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정할 수도 있겠다. 모든 사업은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정밀하게 이 사업은 계산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에 맡기면 가장 쉽죠. 거기에는 정산 작업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협력단에서는 해당 교수한테 특별수당 등 분리되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건 산학협력단이나 예를 들어 어느 단체 또는 지역의 문화재단과 어느 대학 등 연계형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기술적으로 묻습니다. 이것은 정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 작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체가 되면 공동주체라고 하더라도 대표단체가 정산에 대해 책임성을 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대표단체가 하게 됩니다.

**남요원 감사 :** 그러니까 대표단체가 되고요. 예를 들자면 협력단체 그다음에 신청단체로 분리되어서 대표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남요원 감사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교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제목과 내용에 갭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목은 예비예술인 현장역량인데요. 실제 내용은 예술대학 지원 비슷하게 되어 있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예술인을 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비예술인이라고 함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훈경 위원 : 아마 예비예술인이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입문 경로에 예술대학의 지원만으로는 예비예술인 지원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해서 학교나 대회,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서 입문하는 예술가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마 예술전공 대학생이 아니라 예비예술인이라고 지칭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요. 그렇다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비예술인들은 지원할 때 단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18살, 19살, 20살인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예술가단체를 그들이 찾아가서 협력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구성원이 만들어지지만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비예술인들은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으로 첫 번째는 사업명에 대해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명확하게 '예비예술인'이라고 하면 예비예술인의 범주를 여기에다가 괄호하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유형도 더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훈경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청년들이 했을 경우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면 오늘 나온 의견들이 대부분 수렴될 것 같은데요. 더 포함될 것이 있나요? 없으면 이것을 정리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90호 2022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 안건번호 제991호 2022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개의 안건은 경영지원부에서 소관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의 일괄 보고 후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의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병주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2022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수치가 많고 다소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설명 자료는 첫 제목이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3페이지입니다. 예술위원회 회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고 다른 하나는 수탁사업회계입니다. 수탁사업회계는 말 그대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 우리 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할 때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의 회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있는 결산업무 처리 경과 및 후속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자로 끝이 나면 그다음 해 1월 중순까지 한 해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현금결산과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재무결산으로 1월 말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회사인 골프장에 대해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감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결산내역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에 2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본 결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문예진흥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는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며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후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기재부에 통보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이후 8월 31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됩니다. 회의자료 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의 수입·지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독특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금회계는 자금의 유입과 인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립금 계정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회의자료에는 '통화금융기관비예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회계는 사업비회계의 수입 및 지출 관점에서 반대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테면 사업비 지출이 필요해서 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적립금 통장에서는 지출이 되지만 사업비 계정에서는 현금이 들어왔으므로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거꾸로 사업비 통장에 들어온 수입금이나 자금전입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립금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사업비 계정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으므로 지출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와 적립금 계정이 상호 간에 일정 부분 복식부기의 상대 계정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가급적 사업비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별도 설명 자료 1쪽에 있는 첫 번째 표의 총계 항목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는 작년 예산이 5,346억 5,000만 원이 편입되었고 이 중에서 집행은 4,391억 8,000만 원입니다. 적립금회계를 제외한 소계 항목을 보시면, 이것이 사업비회계입니다. 사업비회계를 보시면 수입은 3,799억 4,000만 원을 벌었는데 지출은 4,106억 1,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수입 빼기 지출을 하게 되면 306억 7,000만 원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같은 표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적립금 항목을 보시면 적립금 통장에서 592억 4,0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사업비로 쓰고 남은 돈이 285억 7,000만 원으로 이것을 다시 예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서 적자 운영한 306억 7,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자 운영의 주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복권기금사업비는 모두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복권기금전입금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작년 추경 편성과정에서 복권기금사업비는 568억

증액시켰는데 이에 상응하는 전입금 수입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년에 증액되지 않았던 수입 중 일부인 146억 원만 금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의 초록색 글씨인 복권기금 수입을 보시면 1,738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출에 보시면 2,306억 6,0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운영의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사업회계의 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5페이지이고 별도 설명 자료는 1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수탁사업은 문체부나 체육진흥기금 등 위탁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고 우리 기관은 사업을 수행 및 종료한 후에 사업비를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모두 반납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 1페이지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시면 수탁사업회계는 작년 예산이 531억 9,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집행은 504억 7,000만 원입니다. 차기연도로, 그러니까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16억 8,000만 원이고 남은 잔액 10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25페이지 그리고 별도 설명 자료 2페이지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 재산의 규모와 그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의 총자산은 6,557억이며 이 중에 부채는 769억 9,0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87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부채가 78억 6,000만 원이 증가했고 순자산은 446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순자산은 감소해서 총자산은 36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복권위원회로 반납해야 될 복권기금사업비 집행 잔액과 매년 충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난 것이며 순자산의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회의자료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탁사업회계의 총자산은 12억 원이고 수탁사업의 특성상 전체자산이 사업종료 후 위탁 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모두 부채입니다. 2021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사업비 규모가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과 비례해서 사업종료 후 반환해야 할 집행잔액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운영 또는 영업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6페이지 중간입니다.

영업상태 또는 재정 운영은 기관이 1년간 경영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 또는 손실이 났는지를 나타낸 것이며 맨 처음 설명드린 예산상의 수입·지출 결산 외에 자산의 감가상각과 시세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 총수입은 3,895억 7,0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190억 9,000만 원이어서 295억 2,0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의 주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적자 운영입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탁사업회계 총수입은 506억 원이고 수탁사업의 특성상 수익금 모두를 사업비로 소진하기 때문에 총비용도 50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 자료의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은 1,153억 원이었습니다. 적립금은 적립금 운영을 위한 별도 계좌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과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적자운영으로 306억 7,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반면 투자손

실로 예전에 결손 처리가 되었던 투자상품에서 11억 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인 사업비 잔액 반환 등이 추정되면서 부채가 71억 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225억 원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 적립금은 9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 운영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도 모금폐지 이후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유자금 즉 적립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금소진으로 인한 고갈이 우려되며 일반회계 및 타 기금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서 재원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 금년도 예상 수입·지출에 따르면 275억 흑자운영이 돼서 금년 말 적립금 잔고는 다시 1,203억 원으로 회복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상 흑자운영의 주요 이유는 작년 추경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복권기금전입금수익 568억 원 중에서 일부인 146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으며 이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2022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설정(안)은 저희 위원회 정관에 따라서 토지, 건물, 구축물, 무대기계와 같은 기계장치 등 주요 장비에 대해서 중요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정관에 별표1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예술위원회의 주요 재산은 5,387억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234억 1,000만 원이 줄어서 2022년도 말에는 5,152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회의자료 30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예술위원회의 주요 재산이 줄어든 내용은 매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적립금이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대폭 줄어든 점이 주요 재산의 감소 원인이 되었습니다.

뉴서울골프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매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노후자산이 불용되면서 폐기처분한 내용이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본재산 세부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기금적립금 928억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는 2,655억 원을 가지고 있고 골프장은 2,497억 원입니다. 골프장은 대부분이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회계는 원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당연한데요. 기관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기록원과 옛날 극장을 독립할 때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200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재산 총액은 5,15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요약보고자료와 각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전체적인 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 24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포기 반납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406억 정도인데요. 예상은 164억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렇게 많이 늘어난 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사업포기가 특별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주된 내용이 복권기금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교부를 했는데 늘어난 사업비만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대부분이 문화누리카드죠?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배정은 되었는데 발급을 못 했거나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산 결산은 제가 20년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갑영 위원** : 우리가 저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기금으로 썼고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다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일반회계와 체육기금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관광기금도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 돈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섞어버립니다. 섞여서 따로 구분이 안 되고요. 복권기금은 따로 관리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다.

**정갑영 위원** : “왜 기금이 줄어드는가?”를 알려면 우리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간 사업들이 만약 구분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알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붙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탁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집행만 하는 경우고요. 기금을 통해서 오는 것도 꼬리표가 붙어서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기금이 들어오면 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하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순수예술을 하는데 관광과 연계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의 고유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별로 뭐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아까 ‘지원사업포기 반납금’이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런데 또 복권기금 반납도 있던데 그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사업비 정산이 끝나고 그다음 해에 반납이 이루어지고요. 그해에 복권위원회로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산해서 남은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확정

한 다음에 반납하기 때문에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장미진 위원** : 시차 때문에 이런 건가요?

**장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92호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에 관한 규정(안)과 안건번호 제993호 보수 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소관부서가 인재성장부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괄 보고 후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성규 인재성장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금일 2개 안건의 핵심 내용은 2023년도에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임원과 사무처장의 급여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통 분담 차원에서 실제 지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 내부 기준이 아니라 정부 지침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에서 규정을 받을 때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등에 관한이 어떤 내용이나?”는 질의가 많아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3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은 임원과 사무처장과는 급여 결정 체계가 다릅니다. 직원 같은 경우 올해 1.7%가 인상됩니다. 다만, 직원들 직급별로 임금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기에 나와 계신 노조와 세부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규정에 나와 있는 직급별 초임연봉이라고 함은 신규 입사를 했거나 승진을 한 경우에 최초 적용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작년에 6급으로 신규 임용이 되어서 3,021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저는 3,021만 원에서 1.7%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이 될 텐데요. 이 직급 초임을 당해연도 1.7%로 똑같이 인상시키면 작년에 입사한 저와 올해 입사한 신규직원의 급여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직급별 초임연봉 같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임금인상률의 절반만 인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최고직급인 1급의 초임연봉은 똑같이 가고자 하고요. 최하직급인 7급의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는 끝났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이게 각각의 정부 부처마다 다른가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똑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임원급은 1.5%고 직원은 1.7% 인상시키라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인상률은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전체 공공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 없습니까?

김진각 위원 : 예술위원회는 지금 성과급을 따로 지급합니까?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예. 성과급은 저희가 총 3가지가 있고요. 경영평가를 받으면 받는 평가성과급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주는 성과급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예술위원회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직급별 초임연봉을 인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기관으로만 국한해서 비교하면 상위권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높은 기관이 예술의전당 정도밖에 없는데요. 300개가 넘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비교해 보면 딱 중간입니다. 전체로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정갑영 위원 : 어디가 더 높다고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예술의전당이 저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김진각 위원 :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 종사를 하고 싶은 인재들이 오게 하려면 보수 수준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쪽으로 초봉부터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봉을 보니까 7급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급을 빼고 순수한 연봉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좋은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보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신규 입사 시 직급은 6급이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7급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발생한 직급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마찬가지로 상황인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급여를 같이 맞춰준 것이 아니라 급여 수준은 똑같이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급수를 하나 더 만들게 된 현상이고요. 현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 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고 직급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급수별로 인원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진급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난제 중 하나입니다.

홍성태 위원 : 감사의 역할은 뭔가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상임감사의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서 상임감사의 급여는 기관장의 80%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공공기관들이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엄청 많이 구조조정도 하고 임금조정을 해서 많이 적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바꾸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보고안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에게 보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컷지원 시각예술, 다원예술분야 추가 지원 결정을 위한 심의 결과보고의 건을 포함해서 총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컷지원 시각예술, 다원예술분야 추가 지원 결정을 위한 심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결안건에서 주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 시 보통 예비순위를 7% 정도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예비순위자들에게 기회가 가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포기가 시각예술 분야와 다원예술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서 포기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문화재단과 저희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청년예술가들이 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서울문화재단이 조금 뒤에 심의를 하면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를 하셔서 중복이 적었는데 올해는 중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중복 같은 경우 택일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은 서울문화재단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서울문화재단은 거의 2,000만 원을 시각예술 청년작가에게 드리고 저희는 약 1,200만 원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예비순위 2순위까지 처음에 뽑았던 것을 예비순위 11위라든가 예비순위 6위까지 내린 내용입니다. 이 심의는 당연히 기존 채점점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채점은 하지 않고 기존 점수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추천만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예비 1위와 2위까지 뽑았던 것을 11위까지 뽑는 내용이고요. 다원예술 분야는 예비 1위, 2위, 3위까지 뽑았던 것을 예비 4위, 5위, 6위까지 추가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상위 순위부터 저희가 사업추진 의사를 물어 봅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의 순서를 정하는 심의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분들과 연락해서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지원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불용도 줄이고 보다 많은 청년예술가들에게 추가 지원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서울문화재단과 비슷한 사업이고 그쪽의 예산이 더 커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갈다는 말씀이죠? 사업이 겹친다는 말씀이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거의 유사한 생애첫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문예위와 서울문화재단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큰 쪽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나요?

**정병국 위원장 :** 현재 지자체 별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복되고 안 되고는 지자체별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대신 문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 지자체보다 적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를 줄이든 예산을 더 확보하든 더 늘려서 이게 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라 위원 :**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가지가 슬펍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입

장에서 보면 서류가 만만치 않은데 두 군데를 내야 하잖아요. 이것도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시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모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었다면 문예위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국가사업이 지자체 사업한테 800만 원 정도 적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동안 시기 조율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율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라 위원 :** 생각해 보면 제가 4~5년 전에 공모전 심사를 할 때도 서울문화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부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42쪽부터 46쪽까지의 보고내용입니다. 현재 융합예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의과정에 있고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3월 초에 위원님들께 서면 의결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예술의 표현을 확장하고 확장된 표현이 예술가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총 4개의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창작의 과정이라고 해서 자율적인 사전과정 지원은 작년 말 저희 정시공모와 같이 진행되어 이미 18건이 선정되었구요. 이번에 저희가 별도 공모로 진행한 건은 단계별 창작지원 3개 유형입니다. 단계별 창작지원은 현재 저희 체계가 아이디어를 기획·구현하는 1단계 그리고 창·제작하는 2단계, 창·제작품 부분에 대한 보완과 진행하는 3단계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부터 1월 19일까지 공모를 받았고 공모받은 내용을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인터뷰심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할 때는 지원심의 기준과 규정에 대해서 지난 워크숍을 통해 한번 보고받으셨는데요. 저희 방식은 심의위원 풀에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격자에 대한 부분을 기준에 따라 진행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유형1 사업은 60건, 유형2 사업은 26건, 유형3 사업은 9건에 대한 지원결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위한 자료인 심의총평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원내역에 대한 가·부 내용은 오늘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심의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라 위원 :** 궁금한 사항보다 심의위원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심의위원 풀 안에서 저희가 후보군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 풀에 대해서는 저희 워크숍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천 몇 백 명인 분들을 보기도 힘들었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기술융합 분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분야의 심의위원 풀이 많이 약해서요. 사무처에서 추천해 주신 심사위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 중에서 보는 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 풀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자기 주도로 심사위원에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에 대한 검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해 놓고 “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자격 유무로 인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심의위원 신청절차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결격사유 정도는 보고 그것 자체를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 2,000여 명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이름만 올라가 있고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진의 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오늘 보고를 드릴 안건은 2가지가 있고요. 우선 2022년도 연간감사 결과보고와 2023년도 연간감사 계획입니다.

우선 2022년도 연간감사 보고는 보고자료가 아닌 별지의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별첨자료입니다. 이것은 대외비입니다.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는 대외비로 유출되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간감사와 관련되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사로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국민의 주권을 기재부장관께 이양하신 거고 내부 이사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을 통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합법성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을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기관조직의 운영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3쪽입니다.

감사실적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는 총 11건을 계획했는데 감사 실시는 총 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여기 안건으로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그게 2022년도에는 총 783건을 수행했고요. 외부감사로 감사원 감사는 없었고 문체부 감사가 작년엔 3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유형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특정 6건, 재무 1건, 공무 1건 그리고 회계감사는 매년 하는 거라서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자체감사로 총 19건의 감사처분 건수가 있었고요. 문체부 감사는 총 28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진행하였고 실제 감사 기간은 총 73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11건을 계획했었는데요. 계획대비 실제 감사는 2건에 불과했고 연도 중반에 사건이 발생하여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재무 등 민원이 7건 있어서 그것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감사실적 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도 중반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건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총 19건의 지적을 했는데요. 그중에 기관운영은 자산운영관리, SPC운영관련, 법인카드 실태 점검 등을 감사하였고요.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2개 단체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외부 문체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1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합감사. 문체부가 예술위원회를 종합감사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감사처분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총 19건을 처분했고요. 신분상 조치 인원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총 23건의 지적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4명이고 재정상 조치로 1,100만 원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7쪽입니다.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22년도 총 783건을 하였고 그중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게 122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의견 제시는 19건이며 저희의 의견을 따라주셔서 잘 이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부터는 감사별로 주요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산운용 및 실태 점검을 총 1회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홍은동SPC라고 저희가 2008년도에 자산투자를 했던 사건 중에 부실이 나서 다시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2개 관련해서 점검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 부분에서는 규정상 자산운용부서와 그 자산운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SP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망가졌던 사건들을 다시 재운영하고 있었는데 발견된 문제점은 홍은동SPC를 통해서 상가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수익금을 규정상으로는 SPC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인데 실무 부서에서는 너무 아까워서 그 자금을 잘 운영을 한 것이죠. 다만, 운영하는 방식이 내부통제를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방식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내부통제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하게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회계감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회계감사에서 아까 강병주 부장이 전반적으로 결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실의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법인과 얘기를 하면서 확인된 주요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재무적 상황은 되게 안 좋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경기침체가 전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예상이 됨에 따라서 관리방안이나 리스크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문체부 감사인데요. 문체부 감사 쪽의 종합감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14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심의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 심의제도 등도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실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감사가 하는 게 엄청 많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김기용 감사실장** : 2023년도 연간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요. 예술위원회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서 올해 감사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2023년 운영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라는 것은 기관의 재산·회계를 검사·감독하고 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 및 소속 임직원의 직무감찰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공공책무성을 기여하는 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감사 방향은 기관의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점검을 통해 기관의 임무와 성과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감사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부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만경영, 부패행위 등 경영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의 중점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총 4건, 특정감사 3건, 성과감사 1건 그리고 복무감사 3건입니다. 그렇게 총 11건을 계획하였고요. 종합감사는 기초예술 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교류’ 등 총 4개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연말에 전반적으로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으로 뭐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특정감사는 3건인데요. 기관 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서 감사사안을 선정했고요. 성과감사는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저희 기관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인데요. 저희 기관의 청렴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도 1등급 올라서 4등급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감사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이 있어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복무점검을 지양하고 공직기강과 부패 및 적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올해 감사계획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실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초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기초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협의변경 추진 현황보고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증액의 건입니다. 정부 민생경제 대응 방향 발표가 2월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30억을 추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돼서 기재부와 협의에 따라서 증액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현재 기준 180억 원입니다. 30억 원을 증액해서 210억 원을 추가로 현장 예술인에게 용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오늘 이렇게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고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서면 의결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이며, 이후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생활안정자금의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52쪽을 보시면 이 사업 같은 경우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678억 원 정도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167억 원 정도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미 위원 :** 그런데 저소득 예술인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어떻게 되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 사업에 대해 용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감사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다음은 지난 위원회 회의 때 논의가 되었던 8기 소위원회 운영 계획(안)입니다. 53쪽입니다. 비상임위원님과 외부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게 됩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략 소위원회는 기금의 재원안정화 및 기관의 기능조정이나 중요 경영안건에 대한 검토,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계기성 사업의 안건 검토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는 민간기부 확대나 예술나무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그동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이슈나 예술인권리,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에 대한 후속논의,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TF로는 심의제도개선 TF를 운영하자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고요. 지난번 위원회 때는 장인주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심의제도개선 TF에서는 심의위원 풀 운영 개선 방안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골프장운영개선 TF를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공공

기관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골프장 매각이나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기술융합 TF는 예술과 기술융합 사업의 지원체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통합 플랫폼 구축과제는 사무처 내 유관부서 중심으로 현황 점검 선행을 하고 추가로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심의제도개선에 정종열 위원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하는데 명단에 없으십니다.

**정병국 위원장** : 빠뜨린 것 같은데요.

**김미라 위원** :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여기에 없었는데 제가 융합기술을 하면서 심의위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술과기술융합 TF를 김미라 위원님께서 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운영개선 TF는 홍성태 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정갑영 위원님께서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를 맡기로 하셨고요. 예술후원활성화도 같이 맡기로 하셨나요? 그리고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어느 분이 맡기로 하셨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필요성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정정숙 위원님께서 하시나요?

**정정숙 위원** : 아니요.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저는 사실 2년 동안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오신 8기 위원님들께서 맡아서 꾸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장미진 위원님이 하시는 게 어떠세요?

**장미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장미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세요.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는 김진각 위원님께서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진각 위원님.

**김진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할 일이 많습니다.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저는 정책 쪽이기 때문에 전략 쪽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면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정숙 위원 : 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상관없습니다. 여러 군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시면서 예술후원활성화도 같이 담당해 주세요. 예술 후원활성화에는 홍성태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주시죠.

홍성태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모두 정리가 되었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논의해 보고 소위원회든 TF팀이든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그것을 반영한 소위원회든 TF팀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면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혹시 말씀하신 차원에서 추가로 가능하다면 공연예술활성화에 대한 장르가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공연예술활성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구체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과거에 보면 그냥 만들어 놓고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예술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걸려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TF팀을 구성할 것인가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큰 덩어리로 “뭐를 활성화 시키자.” 또는 “각 장르별로 이것을 하자.” 이런 식의 위원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논의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당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다른 회의에서 예술과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간을 특정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당인리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별도의 팀이 지금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일단 진행하게 놔두고요. 예술과 기술융합 TF팀에서 지금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미 극장 측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4개 극장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안을 냈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김미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는 정갑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서 김진각 위원님이 같이 들어가시고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예술후원활성화는 김진각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홍성태 위원님이 같이 들어가시고요.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장미진 위원님이 맡으시고요.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윤리·인권 소위원회는 장미진 위원님이 하시고 배은주 위원님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제도개선 TF는 정종열 위원님과 장인주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골프장운영개선 TF는 홍성태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과기술융합 TF는 김미라 위원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또 4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심의제도개선 TF는 장인주 위원님이 지금 나가시면서 본인이 TF팀장을 하셔서 책임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밝혀 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장인주 위원님이 TF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훈경 위원 : 혹시 다른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훈경 위원 : 윤리·인권 관련 소위원회를 같이 담당해 보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서승미 위원님이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는 경영전략 쪽과 예술후원 쪽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경영전략 소위원회는 서승미 위원님도 들어가시고요. 예술후원 활성화 소위원회도 서승미 위원님께서 들어가시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시각예술 중심인데요. 기술융합이 시각예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종열 위원 : 저도 가능할까요?

김미라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우리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인사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술과 기술융합에서 기술 쪽은 굉장히 색다른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현장에서 벤처하시는 분들, 그리고 극장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소위원회 같은 경우 내부위원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위원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 현장소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 공모를 해서 현장소통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을 모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소위원회가 3개 있는데 이 3개 위원회 중에 가능하다면 현장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사무처 실무진을 통해서 공고를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 보고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3년도 3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3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을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소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5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회의 종료)

